펜싱 송종훈 유스 올림픽 간다

〈전남공고〉

KOC, 제1회 싱가포르 유스올림픽 선수단 확정

육상·양궁·태권도 등 18개 종목에 102명 파견

전남공고 송종훈(17·2년 사진)이 펜싱 대표로 싱가포르 유스올림픽에 출전한다.

대한체육회(KOC)가 오는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 1회 싱가포르 유스올림픽에 참가할 한국 선수단을 14일 확정 발표했다.

전남공고 펜싱부(감독 김만제) 송종훈은 남자 사브르 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왼손잡이인 송종훈은 순간 움직임이 좋고 파라드(막고 찌르기)동작이 뛰어나다.

지난해 펜싱협회 회장배 개인전에서 3위에 올랐던 송종훈은 오는 21일부터는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강원도 양구에서 하계훈련을 갖는다.

문화관광부장관기 대회 참가를 위해 태백을 찾은 송종훈은 "처음으로 열리는 유스올림픽 대표로 나가게 돼 기쁘다. 공격적인 승부로 메달권에 진입해 한국을 많이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스올림픽은 2007년 7월 과테말라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자크 로게 위원장의 주도로 창설됐다.

1회 대회는 8월14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며, 전세계 205개국의 14~18세 청소년 4400여명이 참가해 26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경기 종목은 하계올림픽과 똑같은 26개 종목이지만 농구는 3대3 경기로 진행되며 탁구와 배드민턴, 테니스 등 복식 경기에서는 국적이 다른 선수끼리 혼성팀을 구성할 수 있다.

한국은 양궁, 배드민턴, 농구, 펜싱, 체조(기계), 유도, 근대5종, 사격, 탁구, 태권도, 트라이애슬론, 레슬링, 수영(경영), 역도, 핸드볼(남), 하키(여), 육상, 요트 등 총 18종목에 102명을 파견한다. 탁구의 김동현(두호고)과 양하은(홍진고) 등 국가대표 선수 10명도 출전한다.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는 독일 베를린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을 거쳐 오는 8월3일 한국에 도착한다.

한국 선수단은 4일 광화문 광장에서 결단식을 갖고 11일과 12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결전지인 싱가포르로 출발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셔널리그, 14년만에 올스타전 승리

MLB, 아메리칸리그 3-1 꺾어

결승타 맥캔 '별중의 별' 선정

내셔널리그(NL)가 미국프로야구 '별들의 잔치'인 올스타전에서 14년 만에 아메리칸리그(AL)를 꺾었다.

NL 올스타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제81회 올스타전에서 '영웅' 브라이언 맥캔(애틀랜타)의 역전 결승 3타점 2루타에 힘입어 AL 올스타를 3-1로 제압했다.

이로써 올해 NL 우승팀은 7전4선승제로 열리는 월드시리즈에서 1,2,6,7차전을 홈에서 치를 어드밴티지를 획득했다.

1996년 올스타전에서 6-0으로 이긴 것을 끝으로 작년까지 AL에 12연패(1무승부 포함)를 당했던 NL은 연패 사슬을 끊고 통산 전적에서도 41승2무38패로 근소한 우위를 지켰다.

감독 추천으로 출전해 결승타를 때린 맥캔〈사진〉은 경기 후 최우수선수에 뽑혀 '별중의 별'로 떠올랐다.

전반기에만 15승을 올린 오른팔 우발도 히메네스(콜로라도.NL)와 12승을 챙긴 왼팔 데이비드 프라이스(탬파베이·AL)의 선발 투수 대결로 막을 올린 이날, 5회 AL 올스타 공격 때 0-0의 균형이 깨졌다.

선두 에반 롱고리아(탬파베이)가 볼넷으로 기회를 만들었고 조 마우어(미네소타)의 땅볼을 잡은 NL 투수 귀홍즈(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1루에 악송구하면서 AL은 무사 2,3루 황금 찬스를 잡았다.

로빈슨 카노(뉴욕 양키스)가 좌익수 쪽으로 희생플라이를 날렸고 롱고리아가 여유있게 홈을 찍었다. NL 올스타는 0-1로 끌려가던 7회초 1사 후 베테랑 스콧 롤렌(신시내티)이 AL 구원 필 휴즈(11승·뉴욕양키스)에게서 중전 안타를 때려내면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맷 할러데이(세인트루이스)의 중전 안타와 말론 버드(시카고 컵스)의 볼넷으로 이어간 2사 만루에서 왼손타자 맥캔이 바뀐 좌완 맷 손튼(2승5세이브·화이트삭스)의 시속 158㎞짜리 빠른 볼을 잡아당겨 우선상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때렸다. 그 사이 세 명의 주자가 모두 홈을 밟아 NL은 전세를 뒤집었다.

/연합뉴스

"갈등 조정…중흥 기틀 마련했는데"

'대통령실장 내정' 임태희 배구협회장 거취 관심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배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년 가까이 대한배구협회 수장을 맡아왔던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실장으로 내정되면서 협회장 유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제35대 배구협회장으로 취임했던 임태희 신임 대통령실장은 한국배구연맹(KOVO)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배구계 안팎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 한국 배구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배구협회는 임태희 회장의 유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춘표 배구협회 전무는 "임태희 회장이 계속 협회장을 맡는 게 침체한 배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며 이런 분위기를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을 이끄는 김원길 총재가 2001년 WKBL 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겸임했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도 원내대표와 대한태권도협회장을 함께 맡았던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임태희 회장측 관계자는 "대통령실장은 장관 때와 달라서 현실적으로는 (배구협회장직 유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하지만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배구 발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회장직 진퇴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월드리그 배구 한국-브라질 전에 앞서 시구하고 있는 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관람석 통로에서도 연습 14일 경기 김포체육관에서 계속된 제23회 회장배 전국리듬체조대회 및 제4회 김포시장배 국제리듬체조대회에서 선수들이 관람석 통로에서 연습을 하며 땀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금파공고 수구팀 창단식

광주 금파공고 수구팀이 14일 창단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창단식에는 김양배 교장을 비롯해 전학철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임효택 광주수영연맹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광중 감독이 이끄는 금파공고 수구팀은 국수훈·강용진·김병관·김용연(이상 3년), 김종찬·윤진우·조민영·최원길·고광원·임태웅·김민철·서영우·김형국·송찬종(이상 2년), 유해성(1년)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5월 서영채 코치를 영입한 금파공고는 광주체고 수영장 등지에서 수영연습과 체력훈련 등을 하며 전국체전 출전을 목표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군(軍)특성화고교로 선정된 금파공고는 태권도, 마라톤, 수영 및 스키 강습을 통한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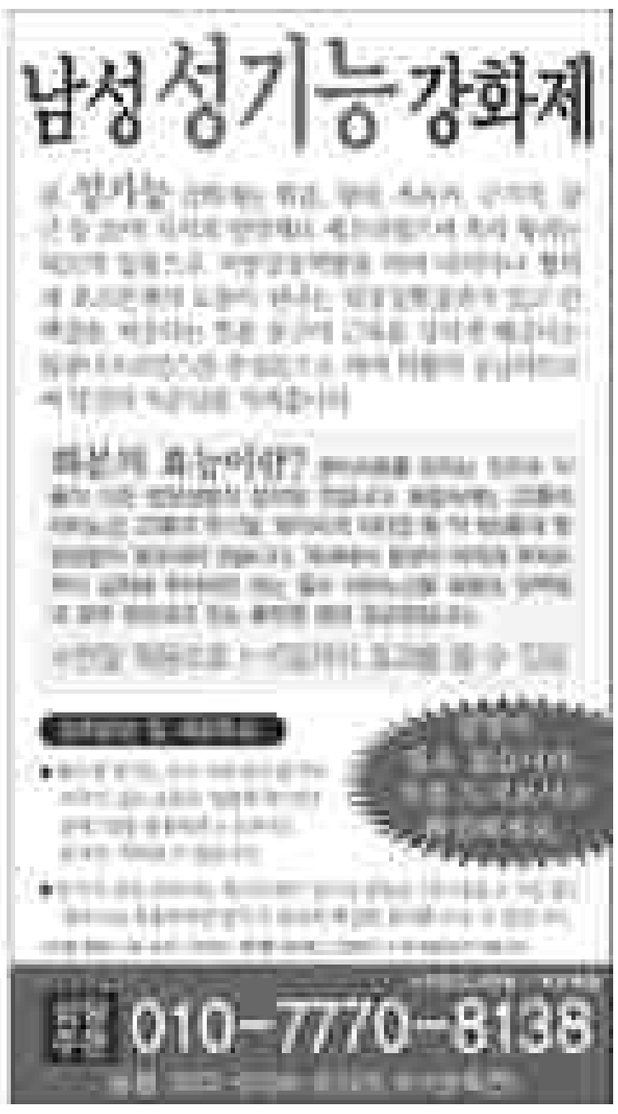
강진군청 홍의철 사이클 MVP

체육공단이사장배 경륜·속도경기 1위

홍의철(강진군청)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 사이클 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

홍의철은 14일 영주 경륜훈련원에서 막을 내린 대회에서 경륜과 속도경기에서 1위에 올랐다.

여자일반 장혜민(연천군청)도 500m독주와 단체추발 3㎞, 책임선두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최고 선수의 영광을 안았다.

이들이 소속된 강진군청(남자)과 연천군청(여자)은 일반부 단체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남자대학부에서는 한국체육대학교가 4개 종목을 석권했다.

고등부에서는 대전고와 인천체고가, 중등부에서는 중흥중과 감천중이 각각 남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